



대한민국 이소연 우주에 서다

(광주 출신)

어젯밤 8시16분39초 소유즈호 발사... 궤도 진입 성공

2008년4월8일 오후 8시16분39초 마침내 대한민국 이소연이 우주로 날아올랐다. <관련기사 3·4·5·20면> 광주 출신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29·한국항공우주연구원)씨를 태운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이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굉음과 화염을 내뿜으며 초속 500m 속도로 우주로 향해 힘차게 치솟았다. '스페이스 코리아(Space Korea)'를 세계에 알리는 함성이었다. '대한민국

유인 우주개발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애초 소유즈호는 이날 오후 8시 16분27초에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비행거리 측정 착오로 12초 지연됐다. 정부가 2000년 12월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에 우주인 양성계획을 반영한 지 7년여만에, 2006년 과학의 날(4월 21일) 우주인 공모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한국 우주인 배출'의 결실을 맺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36번째 우

주인 배출국, 7번째 여성우주인 배출국이 됐으며 이 씨는 세계 49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 여성 우주인이 됐다. 우주과학실험 국가로는 12번째다. 이소연씨를 태운 소유즈호는 발사 118초 후 1단 로켓이 분리되며 대기권을 벗어났다. 이후 2단, 3단 로켓이 분리되면서 발사 588초 만에 소유즈호는 220km 상공의 우주궤도에 진입했다. 소유즈호는 자체 엔진을 이용해 2

일 동안 지구를 33~34바퀴 돌면서 서서히 고도를 높이다가 비행 3일째인 10일 오후 10시 350km 상공에서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킹한다. 소유즈호가 도킹에 성공하면 이씨는 ISS에 옮겨타 곧바로 모스크바 임무 통제센터(MCC)와 연결, 예비우주인 고산 씨와 교신한다. 이씨는 10일간 ISS에서 초파리의 노화과정 등 18가지 우주과학 실험과 한국 학생들과의 무선 교신, 한국을

알리는 각종 퍼포먼스를 펼치고 19일 오후 3시52분 미국 여성 우주인 페기 윌슨, 러시아 우주인 유리 말렌첸코와 함께 카자흐스탄 초원지대로 귀환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8일 한국인 첫 우주인 탄생과 관련 "한국인 첫 우주인 탄생은 온 국민의 기쁨이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고 축하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선택의 날... 내 한표가 정치 바꾼다

18대 총선,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
오후 9시께 대다수 후보 당락 판가름

결전의 날이 밝았다. 한국정치사의 흐름을 바꿀 제18대 총선이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 333개소, 전남 859개소를 비롯 전국 1만3천 24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관련기사 2·6·7·8면>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는 광주 103만4천393명, 전남 149만6천 888명을 포함해 모두 3천779만6천35명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지역 구 245명과 비례대표 54명 등 모두

299명을 뽑게 되며, 광주에서는 8개 선거구에 38명 그리고 전남에선 12개 선거구에 54명(1명 사퇴)이 출마해 평균 4.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17대 선거와 같이 지지후보와 지지정당이 각각 한 표씩을 행사하는 1인2표제가 실시되며, 투표 종료 3시간 후인 오후 9시께에는 대다수 후보의 당락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정당투표에 대한 개표가 마무리 되는 밤 11시30분께에는 정당별 의석

수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포함한 100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150석 이상, 자유선진당 20석, 진박연대는 10석 이상을 승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개표는 광주 동구의 전남여고 강당 등 광주지역 5곳과 전남지역 22곳의 개표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에 앞서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6시 정각에 맞춰 KBS, MBC, SBS, YTN 등 4개 방송사가 출구조사를 토

대로 일제히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예측의 정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 남구와 북구 갑, 광산구 갑 그리고 전남 목포와 무안·신안, 해남·완도·진도 등 6개 지역에서 무소속 돌풍이 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격전지 후보들은 선거운동이 마감되는 지난 8일 밤 12시까지 한 표라도 더 건지기 위해 표밭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각 정당 지도부들도 지역구 후보를 띄우고, 정당 지지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 막판까지 안간힘을 쏟았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유권자 혁명을 이루기 위해 투표 참여는 물론 한 표, 한 표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심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남 닭·오리 14만9천마리 묻어

전북 AI 계속 확산

전북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 신고가 계속되는 등 AI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8일 고병원성 감염 우려가 있는 전남지역 관련 농가의 오리·닭 14만9천100마리가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됐다. <관련기사 11·12면>

AI 신고는 지난 1일 김제시 용지면 양암리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3일 정읍시 영원면 영성리 육용오리 농장, 4일 순창군 육용오리 농장, 6일 정읍시 고부면 육용오리 농장, 7일 정읍시 후지리 육용오리 농장 등으로 이어져 이 중 김제와 정읍시 영원면 농장의 감염 오리가 고병원성으로 밝혀졌다.

전남도는 8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지난 3~5일 정읍 AI 발생 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했던 전남지역 9개 농장의 오리·닭 14만9천100마리에 대해 예방적 강제 폐기 매몰(살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읍의 AI 발생 농장의 출입차량은 나주 화인코리아 소유의 트럭 5대로 이들은 나주·구례·해남·무안·영암 등 5개 시·군의 11개 농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1개 농가 가운데 정읍의 AI 발생 사실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2

일과 3일 사이에 무안 해제와 나주 금천의 농가에서 2만4천400마리가 나주 화인코리아에 출하됐다 4일 매립됐다. 정부는 AI 발병으로 생계가 곤란한 농가에 최대 1천4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전남의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총 보상금은 약 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8일 AI 발생 현장인 전북 정읍시를 직접 찾아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유망학원 장학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i.ac.kr

우주로 날아오른 코리아의 꿈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씨를 태운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호가 8일 오후 8시 16분39초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후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The Skin
피부
스킨
스킨
스킨